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인간의 진정한 힘은 사회적 지위나 넉넉한 은행 잔고, 번듯한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실하고 강인하고 고귀한 내면에서 나오며, 그것이 행복의 기초다. 많은 사람이 부와 힘을 동등하게 여기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갖게 되어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면 크게 실망한다.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자들도 적잖이 자살한다.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어떤 현명한 사람에게 다시 가난해진 기분이 어떤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파산했을 뿐입니다. 가난이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맞다. 부와 가난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부자들도 있다.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돈이 바닥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다. 돈이 호주머니를 드나드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은 언제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출발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 온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때로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 집과 고급차를 가지는 것보다 큰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외부 환경을 잘 통제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육체, 직장, 돈, 아름다움 등 사람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들은 외적인 힘의 표현일 뿐이다.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고급스러운 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출발점이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패션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 지금은 뚜렷하게 문화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문화는 용도 폐기된 줄 알았던 과거의 물건을 되살려내기도 한다. CD 가 나오면서 모두 내다 버렸던 LP 레코드 가운데 인기 있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몇 배의 돈을 주어도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굳이 큰돈을 주고 이 낡은 매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것을 숭배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것 숭배는 모든 물건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물건은 구매하는 순간 낡은 것이 되어 버리므로 빨리 새것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물건이 수명의 백분의 일도 채우지 못한 채 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따라서 낡은 것을 되살리는 일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건강한 지구를 만들자는 대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 아버지의 유품 가운데 전기면도기를 발견했는데 마침 면도기가 필요했던 터라 쓰기로 했다. 낡고 오래되긴 했어도 신기하게 잘 돌아갔는데 언젠가부터 충전이 말썽을 부렸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필자를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을 주문했다. 놀랍게도 소모품은 물론 충전 배터리까지 다 구할 수 있었다. 결국 간단한 수술 끝에 면도기는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작지만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작고 싼 전기면도기는 은퇴해도 이렇게 장수를 누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아파트처럼 크고 비싼 물건에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 존중과 사물 존중이 서로 다르지 않을 텐데, 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심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

모든 것은 고장 나기 마련이다. 안경다리도 부러지고 사회 제도도 유효 기간이 끝난다. 답은 두 가지다. 고치거나 교체하거나. 고치는 행위의 핵심은 사물과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뭐하러 고쳐, 그냥 사지”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잘 고쳐 볼까”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MZ 이란 단어는 언론을 달구는 세대 담론의 상징이 된 듯하다. 이는 경제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밀레니얼과 Z 세대, 이들이 업계를 막론하고 소비시장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MZ 세대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절대 빈곤을 모르고 귀하게 자라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들이 소비시장에서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세대 담론이 시작된 것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사회의 변화를 부르짖었던 386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당시의 30대는 한창 보급되던 고성능 컴퓨터의 CPU에 빗대어 표현될 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신세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뜨겁게 들끓고 힘겹게 투쟁하던 젊은 피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MZ 세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MZ 세대는 연대 의식이나 뜨거움의 온도에서 과거 세대와 다르다. 그러나 기술의 격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확고한 주관과 빠른 실천에 능하며 또 그들은 나름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더 지불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미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퍼 나르는 부지런함으로 무장해 있다.

이들은 거대 담론에는 큰 관심이 없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습관으로 자리한 윤리적 소비를 곳곳에 조용히 퍼뜨리고 있다. 사실 이런 소비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는 생존을 좌우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Z 세대는 이 문제를 시끄럽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위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이들의 일상 중시와 연결되어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으로 현실과 괴리를 겪으면서 오히려 일상이 더욱더 권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현대인은 평이한 일상적 행동에서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선두 주자인 MZ 세대는 비현실적인 꿈의 실현이나 이상적이고 완벽한 삶보다는 자신이 늘 겪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에 집중하며 소신 있는 삶을 꾸려가고자 한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자의식 과잉이라고 촌스럽게 여기면서 꾸미지 않아도 멋진 일상을 갈망한다.